

한우자조금, 대한민국

한우브랜드로고 공모전 시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4월 12일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대한민국 한우 브랜드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한우, 세계로 뻗어나가다'라는 주제로 211명 참가, 총267점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우리나라와 한우의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 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과 한우선물세트, 상장이 수여되었다.

주요 수상작으로는 작품명 '대한정통! 세계한우!'를 출품한 이정원 씨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한우의 머리와 코 부분을 태극형상으로 나타내어 한우와 우리나라의 고유 이미지가 잘 드러나 함축성·인식성·참신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탁본 컨셉의 '세계속의 한우'를 출품한 유광 씨와 전통 붓 느낌을 살린 컨셉의 '대한민국 안심 한우'를 출품한 김예진 씨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한우의 새겨진 한국의 기상', '대한민국 한우 세계로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우', '한우의 물들다' 등 총 5작품이 장려상을 받았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서정훈 부장은 "이번 한우 브랜드 로고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활용하여 한우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해외시장에서 멋지게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6. 04. 12]

한돈자조금

각분야 전문가 명예홍보대사와

대학생 한돈서포터즈 위촉



국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한돈 명예홍보대사들이 한돈 우수성 홍보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병규 위원장)는 4월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6년 한돈자조금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MBC 이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돈자조금은 의학, 축산, 요리, 헬스, 스포츠, 언론, 마케팅 등 총 7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3명을 2016년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돈 명예홍보대사들은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돼지 한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촉된 명예홍보대사로는 의학부문 김문호 한의원 원장을 비롯해 WE클리닉 조애경 원장, 더센터오브필라테스 박상준 원장, 보아스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 등이 선정됐으며, 식품, 요리부문에는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회장, 김정은 교수, 이난우 요리연구가, 이진호 셰프 등 총 6명이 위촉됐다. 여기에 헬스, 스포츠부문정아름 트레이너, 두산 베어스 유희관 선수, LG 트윈스 이동현 선수, KT WZ의 박경수 선수 등도 참여해힘을 보탤다. 이밖에 경상대 주선태 교수, 청주대 김찬석 교수, IFA Korea 정국현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23명이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한돈 서포터즈' 발대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2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한돈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한돈자조금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돼지 한돈의 위상을 알리게 된다. 여기에 한돈자조금은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한돈 서포터즈로 위촉해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각 분야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돈자조금 또한 우리돼지 한돈이 국가대표 밥상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6. 04. 11]

낙농육우협회

낙농목장 나무심기 운동 전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낙농목장의 나무심기 실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6일 산림청이 실시 중인 수목지원사업을 통해 소나무, 산수유, 오미자 묘목 6천본을 지원받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목장들을 대상으로 각각 전달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도시화와 유동인구의 유입증가로 목장환경 미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식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한편, 축산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석 전무는 "산림청으로 부터 확보한 묘목수량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공급대상은 지난 3개년 간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목장들에 한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전하고 "묘목을 수령하는 목장들은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번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우수목장 사례 선정을 위한 도(연합)지회

추천요청을 공고를 통해 2016년도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광계신 기자 [2016. 04. 07]

계란자조금

계란 알린이 '에그맘'

발대식 개최



우리 계란의 우수성을 알릴 주부계란 알린이 '에그맘'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구 토즈에서 에그맘 1기 발대식을 열고, 계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가치에 대한 설명과 향후 에그맘 활동계획을 밝혔다.

주부 20명으로 구성된 에그맘 1기는 올 한 해 동안 계란 정보 포털사이트 '에그로'를 통해 색다른 계란 레시피와 계란 맛집 등을 소개하고, 계란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서포터즈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에그맘 중에는 영양사도 함께 활동해 단체급식용 계란 메뉴 개발에도 일조할 예정이다.

에그맘으로 선정된 문지혜 씨(서울 은평구)는 "계란은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어 매력적인 재료다"라며 "앞으로 에그맘으로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계란레시피를 개

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계란자조금 측은 앞으로 계란의 숨겨진 진가를 알려줄 에그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삼시세끼 계란먹기 운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에그맘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4. 18]

사슴협회

제9회 사슴의 날 행사 개최



한국사슴협회는 국내산 녹용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제9회 사슴의 날' 행사를 지난 4월 3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동학사 지구) 입구 머쉬룸 앞에서 개최했다.

올해 9회를 맞는 사슴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협회장 인사, 양록농가 행동강령문 낭독, 한의사협회 규탄구호 제창, 녹용탕 건배, 기념촬영, 녹용탕 시음 등을 통해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번 사슴의 날 행사에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슴사육과 위생적으로 안전한 녹용생산을 다짐하는 양록농가 행동강령문을 선포했다.

한국사슴협회 서종구 회장은 "사슴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국내산 녹용소비촉진 캠페인

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녹용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내산 녹용 소비확산을 극대화해서 사슴 사육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2016. 04. 08]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업무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20일(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표: 이병규 외 9명)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생산자단체장 <대한한돈협회(이병규), 전국한우협회(김홍길), 한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 대한양계협회(오세을), 한국사슴협회(서종구), 한국양봉협회(조균환), 한국오리협회(김병은), 한국육계협회(정병학), 한국토종닭협회(김근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오영복))이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등 관련 분야 정보교류, 축산물 이력제도 정착 등 축산농업인의 소득 증대

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특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국내 축산물 가격안정과 축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농관원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 원산지 및 유통 전문관리기관인 농관원과 축산물 생산자 대표기관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농관원에서는 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와의 합동단속과단체협의회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고품질 국산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이력번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며,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위한 시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국산축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이력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농가소득과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제의 정착을 위하여 축산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의 다양한 농식품 품질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및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 3.0취지에 맞게 농관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